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0호 [루게 제 24533호] 주체 103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선 합숙은 침실과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도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그치지 갖춘 로동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로동자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였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세상에 돌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건설하여 어머니당의 사랑이 공장로동계급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쳐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만지만 날리던 곳이 전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서었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홀과 복도의 층고를 설정하고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벽색감도 안은한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게 침실은 물론 도서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목욕탕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식사실은 연회장같이 꾸렸고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도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보시고 마치 무릉도원같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생전에 인민생활문제

와 직결된 이 공장을 그리도 중시하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숙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총정지국장인 연희에 참가하여 자신의 마을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통하여 인민군대가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였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덧집을 짓고 그안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투쟁자료를 매일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관철로 높뛰는 군인들의 심장을 후한도 알구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본새를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고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꾼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자

당책임일꾼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질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꾼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합주군당위원회가 사상의 포

문을 열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드세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밑바탕에는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는 군당책임일꾼들의 주도세밀한 작전과 노력이 깃들여있다.

연설을 자자구구 되새길수록 자책되는바가 있다. 지난 기간 사상사업에 눈을 돌려나고 하였지만 집행자의 립장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지는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선전선동부의 일꾼들과 함께 앞으로의 사상사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한 군당책임비서는 군인의 당초급선전일꾼들 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중이었던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실감있게 진행된 선동원의 날운영은 선동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날 선동원들은 당초급선전일꾼된 공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새겨안았다. 군당책임비서가 집행자의 립장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선동활동에서 나타나지는 우월함을 지적해주고 개선방향을 명백하게 알려주니 선동원들 차지하는 선동원들의 사업을 짜고들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중이었던것이다.

선차적인 사업, 공통적인 임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이후 행정경제일꾼들에서 정치사업을 증시하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수도의 통일거리일꾼에 자리잡고있는 락방영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으로 찾아가보자.

손탁이 세고 내밀성이 있는 행정경제일꾼으로서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이곳 지배인 강남익동무가 최근에 와서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하는 일꾼으로도 소문이 나고있다.

실지 사업한 내용들을 따져보면 정치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행정실무적인 사업에 앞서 정치사업을 증시하고 그것을 위해 머리를 많이 쓴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이 단위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결실을 낳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자기는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한마디 하였다.

《정치사업은 일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선차적인 사업, 공통적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선차적인 사업, 공통적인 임무!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행정경제일꾼들이 바로 이런 드높은 자각을 안고 행정경제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

경제일꾼이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당일꾼이나 행정경제일꾼은 직분은 서로 달라도 다같이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행정경제사업자체도 순수 실무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심장에 먼저 불을 달아줄 때 더 잘되어나가게 된다. 또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요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에 대중을 요양하고 이끌어올 위치에 있는 행정경제일꾼들이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것이다. 아무리 일심일복 때에도 정치사업을 차요시하면 실적을 낼수 없는것은 물론 행정경제일꾼의 구실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행정경제일꾼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서 순수 행정실무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당의 사상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업과정에 예로와 난관이 막아서면 객관적 조건부터 따져볼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준비정도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해나가는 정치사업을 통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행정경제사업 전과정이 그들을 실현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행전으로 되게 불리우키는 선차적사업과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간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사상공세에서 지니고있는 기관차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선동원의 날운영과 책임비서

지난 4월초 읍지구의 기관, 기업소선동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선동원의 날 분위기는 류달랐다. 군당책임비서가 모임에 참가하였던것이었다.

한달동안의 선동활동정형에 대한 총화가 있는 뒤 선동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험토론회와 시범출연을 진행할 때였다.

피부공장의 선동원이 진행하는 위대해설선전을 주의깊게 듣고 난 책임비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해설하는 선동원의 목소리가 좀 딱딱하다는것을 지적해주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실감있는 자료와 함께 풍부한 감정을 해설선전의 실료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교리가 아니겠는가, 짧게 해도 대중의 심장을 쿵쿵 울릴것이라는 선동원이 진짜배기 선동원이라고.

은근한 선동원이 청청선동시범출연을 하고난 뒤에도 책임비

합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선동원들이 갖하여야 할 선동기재의 준비정도를 간간히 알아본 책임비서는 결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즉시에 세워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군당책임비서가 선동원의 날운영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는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앞으로의 사업설계를 하고 집행해나가는 군당책임비서 장대일동무의 머릿속에 늘 떠도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사상사업을 지도하는 일꾼이였는가, 집행하는 일꾼이였는가. ...)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책임일꾼들이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품을 들여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일꾼경제선동대와 실효

구수하면서 또 량만과 희원이 넘치니 불맛, 들을 맞이 있다. 당정책이 귀에 속속 들어온다. 특히 선동과 혼성중앙 《분노농사 즐거워라》가 참 좋다. ...

수훈, 동봉, 신덕 등 군인의 협동농장에서 진행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꾼들의 경제선동에 대한 대중의 반향은 이렇듯 컸다. 특히 분조장들의 반향이 대단하였다. 분조장의 다섯가지 임무를 다시금 새기고 분발하게 된다면서 그들은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놓치지 않으려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술자 될 똑같은 결의를 터놓았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부서일꾼들로 경제선

비결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데 있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소학교학생을 가장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지난 3월초였다.

조진이 어려운 속에서도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일손을 다그쳐 며칠만에 계획수행률을 2.5%계선으로 끌어올렸다.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공장일꾼들의 마음은 어찌되지 못했다. 그 속도로 나간다면 계획된 날까지 생산을 6.0%정도밖에 수행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것이다. 그만큼 공장의 전투목표가 높았다. 그래서 신심 일부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벌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때 초급당서 홍덕수동무는 대중의 정신력을 더 높이기 위해 공장일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당, 행정, 초급일꾼 누구나 할것없이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내야만 된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미,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행정경제일꾼들은 모든 사업에 정

평성합성가죽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정치사업과 행정실무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든것이다.

지배인 리수홍동무가 모범을 보이였다.

어느날 공장일꾼들의 모임에 참가한 지배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하신 연설내용과 《로동신문》에 실리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 백두산건설세력들의 위대성자료들을 먼저 살펴보라. 그런 다음 실적이 높은 단위의 비결이 바로 애국열의를 높이고, 그 과정에 대중의 심리에 맞고 눈길을 끄는 좋은 속보들이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 생산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진행한 그날의 모임이 일꾼들에게 준 영향은 컸다.

행정경제일꾼들도 사상의 무기를 매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지배인의 모범을 본받아 행정일꾼들과 아래단위의 초급일꾼들도 분발하였다. 가방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분공생의 일꾼들이 대중발동에서 앞장섰다.

어려운 조건으로 가방생산이 진척되지 못하고있을 때 분공생장 장영근동무는 정치사업방법

지배인도 기사장도 정신력발동의 능수로

교육도서인쇄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이 교과서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로력도 그 로력, 설비도 그 설비이다.

하지만 교과서생산에서 이번에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꾼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수 있다. 그 밑바탕에는 행정경제일꾼들모두가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어 대중을 기적창조로 힘있게 불리우도록 노력해나가는 지배인의 열의가 깃들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꾼이건 행정경제일꾼이건 초급일꾼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교과서생산과제를 놓고 일부 초급일꾼들속에서 신심이 없어하는 말들이 오고갔다.

초급당서 림영철동무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려왔다. 이 문제를 놓고 초급당일꾼은 지배인 림경중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눈이 세운 전투목표를 놓고 안락하와하는 지배인의 열의를 보는 초급당일꾼의 마음은 무거웠다. 총원철 두는, 터갈라진 입술... (지배인은 하지도 한다. 그런데 대중은 왜 신심이 없어하는가. 그의 말이 누구나 하나와 같이 그 응해나서도록 떠밀어주자.)

《중원철들의 마음을 움직여

초급당위원회에서

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첫 공적으로 삼았다. 그것은 그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일꾼들에게 학습제강과 강연제강을 비롯한 정치사업자료들을 마음껏 읽어보게 하였다. 또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기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었다.

행정경제일꾼들은 늘 현장에 내려가 이신작적하면서 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분발시켰다. 대중의 열의가 발동되니 그러면 높은 목표도, 아무리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도 어김없이 수행되었다.

중이공급과 성원들은 전투장에 탄약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일손을 다그쳤고 평관직장, 젊은기계직장 성원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갔다. 그러나 화공공정을 맡은 제철직장에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다. 긴장한 로터시정대문이었다. 이때에도 공장일꾼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외적시계가 바로 돌리대활동이었다. 당, 행정경제일꾼들경계대, 봉사부반 돌격대, 청년동맹원들의 야간지원들이다...)

집단적혁신의 불길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온 공장에 차고넘쳐있다. 이에 고무된 직장장 최평형동무는 전투조직을 더 구체적으로 짜고들었으며 작업반장 현승철, 김영선 동무들을 비롯한 제철직장의 중

비결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데 있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소학교학생을 가장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지난 3월초였다.

조진이 어려운 속에서도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일손을 다그쳐 며칠만에 계획수행률을 2.5%계선으로 끌어올렸다. 대단한 성과였다. 하지만 공장일꾼들의 마음은 어찌되지 못했다. 그 속도로 나간다면 계획된 날까지 생산을 6.0%정도밖에 수행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것이다. 그만큼 공장의 전투목표가 높았다. 그래서 신심 일부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벌이지 못하고있었다.

평성합성가죽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정치사업과 행정실무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든것이다.

지배인 리수홍동무가 모범을 보이였다.

어느날 공장일꾼들의 모임에 참가한 지배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하신 연설내용과 《로동신문》에 실리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 백두산건설세력들의 위대성자료들을 먼저 살펴보라. 그런 다음 실적이 높은 단위의 비결이 바로 애국열의를 높이고, 그 과정에 대중의 심리에 맞고 눈길을 끄는 좋은 속보들이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 생산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진행한 그날의 모임이 일꾼들에게 준 영향은 컸다.

행정경제일꾼들도 사상의 무기를 매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지배인의 모범을 본받아 행정일꾼들과 아래단위의 초급일꾼들도 분발하였다. 가방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분공생의 일꾼들이 대중발동에서 앞장섰다.

어려운 조건으로 가방생산이 진척되지 못하고있을 때 분공생장 장영근동무는 정치사업방법

평성합성가죽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정치사업과 행정실무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든것이다.

지배인 리수홍동무가 모범을 보이였다.

어느날 공장일꾼들의 모임에 참가한 지배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하신 연설내용과 《로동신문》에 실리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 백두산건설세력들의 위대성자료들을 먼저 살펴보라. 그런 다음 실적이 높은 단위의 비결이 바로 애국열의를 높이고, 그 과정에 대중의 심리에 맞고 눈길을 끄는 좋은 속보들이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 생산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진행한 그날의 모임이 일꾼들에게 준 영향은 컸다.

행정경제일꾼들도 사상의 무기를 매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다.

지배인의 모범을 본받아 행정일꾼들과 아래단위의 초급일꾼들도 분발하였다. 가방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분공생의 일꾼들이 대중발동에서 앞장섰다.

어려운 조건으로 가방생산이 진척되지 못하고있을 때 분공생장 장영근동무는 정치사업방법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9일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 자주 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또한 미림성마구락부, 태련도전당, 정책사원을 참관하였다.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내 각 총리 박봉주 동지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동지는 29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리베방문 하였던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 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봉남무역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알베싼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평양 시내 여러 곳 참관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이 29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밝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으며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손님들은 또한 미림성마구락부, 태련도전당, 정책사원을 참관하였다.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일행 주체사상탑 참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일행 해방탑에 화환 진정

위원장, 관계부 일꾼들과 알베싼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성덕 평양시인민위원회 부

위원장, 관계부 일꾼들과 알베싼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성덕 평양시인민위원회 부

로씨야 특명전권대사 연회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궁석웅 외무성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궁석웅 외무성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궁석웅 외무성 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당정책을 관철해 온 일군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평양326전선공장 케블직장장 문명철동무의 사회생활경력은 간단하다.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로부터 기술발전실 설계원, 생필직장장, 부기사장, 케블직장장으로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20여년 동안 혁명적 투쟁을 승전한 광명시와 높은 실력으로 지켜오는 나날에 그는 많은 과학기술과 동무들과 새 기술도입, 창의고안들을 받

그가 지켜선 초소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326전선공장 구내길에 오래도록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던 김일성동무였다. 풀어주고 키워준 당과 조국앞에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자각이 가슴에 차올랐다. 깊은 생각을 하고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의 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선은 사람들의 생활과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선은 사람들의 눈에 감춰지지 않는다. 깊은 땅속이나 골짜기에 있어도, 그래서 기념비적 조물들이 일떠설 때에도 사람들은 건설자들은 생각하면서 전선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선이 없다면 나라의 진보와 우리들의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나는 네가 이처럼 중요한 초소에서 체대근대학졸업생답게 일을 잘하길 바란다.》

한성 전선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당부가 그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체대근대학졸업생!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당부만이 아닌 공장로동계급, 아니 온 나라 인민의 당부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최전선초소에서 병사 시절이 제일이던듯 삼삼히 떠올랐다.

누가 누구를 하는 초진장상태가 흐르던 초소, 가랑이 날리는 소리에도 귀를 감추며 격발기를 제시간에 낚아채고, 그 나날들이 가슴속에 새겨졌던 명명만은 병사에게 낚아채고 물려줄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

음으로써 나라의 전선공업을 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케블직장장으로 사업하면서 종업원들을 당에 대한 충성과 의리,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묶어세우고 기술혁신을 다그쳐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직장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직장장, 3중3대 혁명붉은기, 2중26호보범기대영예상칭호를 수여받은 단위, 모범준법단위로 빛났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하는 말에 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의 공로를 헤아려보시고 선군시대 공로자의 값있는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그가 지켜선 초소

그가 지켜선 초소, 그위에는 아버지가 수형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수도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정든 고향이 있었다. 부모형제의 행복한 생활이 있고 조국의 밝은 태양이 있었다.

하디면 오늘 내가 지켜선 초소는 어떤 곳인가. 배지장을 안고 들어선 그에게 초급당원인 한 말이 생각났다. 《전기가 나라의 동력이라면 전선은 그 피줄이라고 할 수 있지. 정보기술발전의 흐름을 타고 지금 전선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고, 나라의 전선공업발전이 동무와 같은 새 세대 기술자들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몸 단단히 해 주오.》

오늘 내가 지켜선 초소에 총소리는 울리지 않아도 여기서 물러선다면 나라의 전선공업이 위태로지게 되고 그러면 나라의 경제발전도, 조국의 부강번영도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 초소이다! 그는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어제날 최전선초소에서처럼 병사의 자세로!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다. 그가 공장의 기술적문제를 당당한 부기사장으로 사업할 때의 일이다.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공장의 기술사업을 책임진 그에게는 일감이 산같이 많았다. 직장, 작업

반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안을 준비하고 개별적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위한 착상과 기술혁신들을 토의해주어야 했고 자신이 직접 그 앞장에서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고열속에서 기술자들과의 협회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등을 때리며 한 기술 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며칠밤을 새웠는데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보십시오. 협회준비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했다. 《난 일없소. 이쯤한 일에 초소를 비우고 갈수 없지.》

한몸의 이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구협회의 일을 검토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참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때뿐이 아니었다. 몇해전 어느날 문명철동무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누닷없이 반기며 맞이하는 안해를 보며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인가에 당신 얼굴이 꽃이 폈소?》

그는 그에게 정성이 깃든 푸짐한 반찬을 퍼놓으며 안해가 물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의 한 제 봉공이 당신네 공장을 칭찬하더군오.》

대오의 기수

병사시절처럼 당정책관철의 맨 앞장에 서서! 이것은 문명철동무가 20여년의 로동생활기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산 좌우명이라고 하였다. 이런 정신을 안고 그는 지난 8년 동안 직장장사업을 하면서 늘 혁신자라고 손꼽히던 그가 새 설비를 다루다가 사고를 낸 적이 문명철동무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눈은 소경이라는 지난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의 시대에 과학기술을 모르면 잠간 사이에 눈은 소경이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공부 하자! 그날부터 직장사무실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질 줄 몰랐다. 제품의 질적요구가 높아지는 데 따라 공장에 품질관리실을 바로세우고 종업원들의 기술기

능수준을 높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문명철동무는 자기네 직장이 이 사업에서 앞장에 서겠다고 나섰다. 품질이 저하되고 실력이 있어야 중요한 몫을 맡아하고 있는 자기네 직장의 제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수 있다는 인식을 주며 종업원들의 실력수준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었다. 문명철동무는 자주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자신이 선생이 되어 종업원들을 깨우쳐주었다. 기술학습이 끝나 모두들 퇴근한 후에는 혼자 남아 다음날 강의준비를 하였고 그러다가 모였을 때 있을 그날 모교의 스승들을 찾기도 하였다.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을 배워주고 뒤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따라잡자! 직장종업원들 모두를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근로자로 만들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오늘 직장의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당겨져 공부열정을 높이고 많은 종업원들이 고급기술로 자라났다.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관철전과 과학기술전으로 안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직장이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앞장서수 있는 것은 높은 실력으로 대오의 기수가 되어 직장을 이끌어온 문명철동무의 헌신적노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직장을 확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리는 데서도 문명철동무는 언제나 대오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8년 전 그가 직장장으로 임명 받았을 때 직장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기술개조를 해야 할 큰 일감을 안고있는 직장실정을 알면서도 일부 종업원들이 일터에 애착을 가지고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첫 사업을 직장부설을 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며칠새에 완공하고 아늑하고 단방 조건까지 되어있어 뜨끈뜨끈한 휴게실이 마련되었을 때 새로 태어난 보금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문명철동무는 직장을 책임진 일군이라면 응수자가 보기에 전제 종업원들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었다.

직장에는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평양326전선공장 직장장 문명철동무

이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의 집을 찾아가다. 그날 그는 엄중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공기운전공과 결혼하던 이야기며 그때 직장종업원들이 찾아와 축하하던 일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동무들과 헤어져, 이런 집단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입속으로 말끝을 얼버무리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하였다. 《나도 동무와 헤어질것 같지 못해. 우리 함께 있자. 나 결한 것은 동무가 말해주고 동무의 결함은 내가 고쳐주겠다. 결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결함고치면 되는거지.》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의 집을 찾아가다. 그날 그는 엄중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공기운전공과 결혼하던 이야기며 그때 직장종업원들이 찾아와 축하하던 일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동무들과 헤어져, 이런 집단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입속으로 말끝을 얼버무리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하였다. 《나도 동무와 헤어질것 같지 못해. 우리 함께 있자. 나 결한 것은 동무가 말해주고 동무의 결함은 내가 고쳐주겠다. 결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결함고치면 되는거지.》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의 집을 찾아가다. 그날 그는 엄중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공기운전공과 결혼하던 이야기며 그때 직장종업원들이 찾아와 축하하던 일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동무들과 헤어져, 이런 집단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입속으로 말끝을 얼버무리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하였다. 《나도 동무와 헤어질것 같지 못해. 우리 함께 있자. 나 결한 것은 동무가 말해주고 동무의 결함은 내가 고쳐주겠다. 결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결함고치면 되는거지.》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의 집을 찾아가다. 그날 그는 엄중무에게 공장의 혁신자처럼 이공기운전공과 결혼하던 이야기며 그때 직장종업원들이 찾아와 축하하던 일을 상기시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동무들과 헤어져, 이런 집단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입속으로 말끝을 얼버무리는 그에게 문명철동무는 말하였다. 《나도 동무와 헤어질것 같지 못해. 우리 함께 있자. 나 결한 것은 동무가 말해주고 동무의 결함은 내가 고쳐주겠다. 결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결함고치면 되는거지.》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른날부터 문명철동무는 그가 기대를 둘러는 모습도 곁에 새기었다. 직장은 엄중무라고 부르는 기대문이 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는 성격이 거칠어서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엇드레질할 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가 작업시간에 기대문을 떼다가 생산에 큰 지장을 준것을 가지고 작업반모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작업반에서는 비판을 주곤 하였는데 문명철동무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감정한 앞세우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판을 받고 그는 며칠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는 소문은 그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을 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 경모의 정 표식 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수그르 에르네네 세계활쏘기련맹 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정신을 반영한 우표 발행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반영한 새 우표(개별우표 1종)를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발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29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 중앙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본 일군들, 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강계청년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현저지도 50돐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강계청년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감사를 보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재 88(1999)년 6월 15일 또다시 발전소를 찾으신이 이곳 발전소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



수그르 에르네네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29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 중앙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본 일군들, 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강계청년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현저지도 50돐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강계청년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감사를 보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재 88(1999)년 6월 15일 또다시 발전소를 찾으신이 이곳 발전소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



수그르 에르네네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25일(9-11시), 29일(12-14시).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3일(14-16시), 10일(9-11시), 11일(2-2시), 13일(15-17시), 7일(18-20시), 9일(9-11시), 11일(10-12시), 15일(12-14시), 23일(7-9시), 28일(11-13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바드민턴경기 21일부터 29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90여개 단체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는 4개 조로 나뉘어 승자전선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체육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